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 밝혀서 정신세계에 치달아야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외국이라는 데를 한시도 쉬지 않고 비행기를 십여 번을 갈아타면서 돌았습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염원에 의해서 한마음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다녀왔지 않은가 하고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전부 각(覺)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니까요. 진리가 하나지 둘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더불어 사는 내 몸이 욕성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바로 우리의 집이자 욕성입니다. 이 만법의 기틀과 기본을 모른다면 우리는 마음을 낼 수가 없어서, 항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못해서 집도 땅가지고 또 저 욕성의 집도 땅가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몸이 땅가지듯 말입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주지 않는다면 내 몸인들 견뎌내겠습니까?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웃을 벗고 싶을 때 벗어야죠. 그러나 웃은 벗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영원하죠.

우리가 미래에서 본다면 현재가 과거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이자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 자체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공부들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막론해놓고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전파가 두루 하고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빛보다 더 빨리 전파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이것이 우주 법계에 두루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몸뚱이

오. 허망한 게 아니라 무상(無常)하다고 해서, 길고 짧은 게 두루 무상하다고 해서 무명초(無明草)라고 이거를 깎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표현이고 또 공부하는 데 방편이자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대로 실상임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미래의 세계도 여기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도리가 전부 법계에 정보가 돼서 정신세계의 미래도 개척을 해나가면서 현실에서도 개척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됩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만 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중생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음으로써 그 부처가 원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원자 속에 또 입자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다면 미래의 정신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높고 낮은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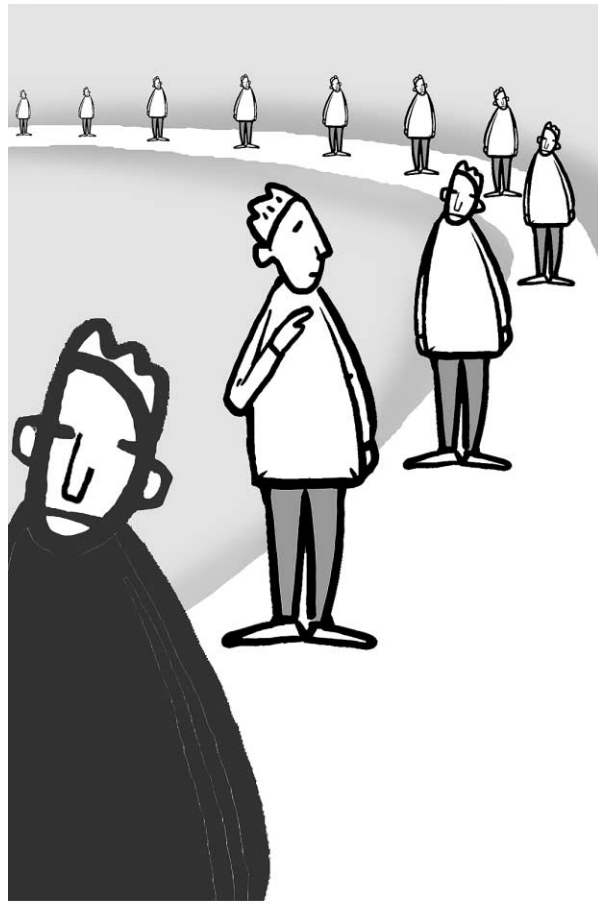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미래의 정신세계는 지금 우리가

가 이렇게 있지만 또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세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도저히 정신세계의 나를 맞보지 못합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지 않고, 같이 있지 않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가 심오하고 그 뜻이 너무나 엄청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엄청난다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질질 끌려다니야만 하는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신세계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된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고가 딱칠까?'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병고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를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 것이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도 알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도리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며 그 뜻을, 마음의 도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항상 이론으로만 '마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이해만 해서 마음을 증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만 해가지고 '내가 알았다.' '나는 그만하면 됐어.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그 아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 깊이를 알며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허공에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어찌 걸리지 않고 앞뒤 없는 불바퀴를 넘나들겠습니까?

마음을 밝혀서 정신세계로 치달아야 하는 지금이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웃을 입고 있는데 이 웃을 입은 것도 머리 깎은 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십시오

없이 모두가 벗이고 모두가 한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가 소리입니다. 내가 우뚝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한마디 여러분한테 물겠습니다.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르는 데서 생각하지 말고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하는 도리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무른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어서 말한 거는 바로 고정됨이 없으니 그대로 우리가 여여하게 놓고 가르므로 걸림이 없다고 하는 소리나 똑같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누가 살아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이 여러분 몸뚱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의 의식들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불성의 기동, 불기동과 더불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서 바로 여

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니 지배하는 동시에 그 마음과 의식들을 전부 한꺼번에 동글러서 한마음이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과 화두를 갖는 것보다도, 이게 빛고 하고 십 년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왔으니가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 씩씩함도 둘이 아니요, 몸도 모습도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도리를 한마음으로써 뭉쳐서 안다면 바로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바로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나'가 뚜렷하게 있고 '나'가 뚜렷하게 있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에 걸림이 없다면 누가 뭐래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너는 못 쓴다 쓴다, 너는 이쁘다 밉다, 지위가 높다 낮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마음 씩씩함을 쓰는 거죠. 이 공부하는 데는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아집을 갖지 않고, 항상 결승하면서 뜻 보시고 와 밥 보시, 부드러운 말 보시해서 뜻으로나 말

로나 마음으로는 모두가 자비하고 인의롭고 폭이 넓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무르는 데에 생각을 내지 말라.' 이 뜻이 됩니까? 모든 것을 '이쁘다 밉다, 너는 잘못했으니깐, 너는 잘했으니깐.' 그렇게 고정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강도질을 하다가도 회개를 하면 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생각 돌린다면 그 사람은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또는 착하지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 이런 것을 머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 바로 머무르는 것이 되고 걸린다 이 소리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 뼘 캄핑을 왔다가 막을 거두고 가는 건데 우리가 원적으로 돌아가면 오늘이 세상, 지금 사는 이 삶이 과

서 질문을 하시면 자상하게 여러분과 같이 할 것입니다.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를 향하여) 삼배례(三頂禮)를 일정례(一頂禮)로 하십시오. 우리는 몸을 수련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수련하는 겁니다.

▲질문자: 삼처전심(三處傳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종선감』에 이르기를 선(禪)은 불심(佛心)이라 했고 교(敎)는 불화(佛話)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가섭존자에게 세 곳에서 전심한 것을 삼처전심이라 하는데 첫째, 열화미소(拈華微笑) 둘째,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 셋째는, 괘시쌍부(擲示雙趺)가 있습니다. 한마음 도리에 비추어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첫째, 열화미소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을 전하신 겁니다. 그 법이 둘이 아닌 까닭이죠. 둘째, 석존이 가섭에게 반 자리를 내준 것은 바로 한도량에 한자리다 이겁니다. 반 자리를 내주시는 것도 한자리다 이거예요. 한자리면서도, 거기 붙어 돌아가는 것은 한자리면서도 내가 있고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도리에서 이 세상만사가 다 거기 붙어 돌아갑니다. 세번째, 석존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뜻은 바로 한쌍에 한발이다 이 소립니다. 뜻으로 생각한다면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마음임을 돌려 깨달으면 이 도리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것을 가르치려고 방편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금도 각자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불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늘이 깨져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내일 죽는

가지고 있으니 자꾸 개발해야 한다

거가 됩니다. 미래의 정신 세계로 가서, 즉 말하자면 세 갈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악, 하나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각(覺)을 이룬 사람, 이렇게 해서 단계가, 그러니까 이들을 율황상제라 하고 모두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한자리 한마음 한발 밟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과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의 정신세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개발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잘만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세계를 둘 아니게 다스릴 수도 있죠. 우리는 자유스럽게 내가 될 수 있고 나를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도리를 알아야 나 아님이 없는 도리의 그 활용(活用),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둘이 아닌 도리를 모르고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머무르고 저기에 머무르다가는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더더부 정신세계의 맛을 못 보고 항상 끄달리면서 아마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여여하게 아마 일하러 나갈 겁니다. 외국에 가니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지구가 땅가지질 일이 생기고 뭐, 생명이 다 위태할 일이 생기고, 2000년대는 무슨 뭐가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난 듣고도 있어버렸죠.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뭐 총말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노예로 사니깐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종말이지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종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물만 있다 하더라도, 휴만 있다 하더라도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 존재가 생명이고 불 존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 생명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까?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이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흠여졌으면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한테 등렸으니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라고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라고 존칭하는 여러분이 지금 지수화풍을 갈래갈래 갈라놓고 먹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자리라도 불성이 없다고 하며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이 세상만사 살릴살이가 다 나옵니다. 석존께서 다자탑(多子塔)의 반쪽을 내쳐서 같이 앉은 자리라는 그 뜻이 말입니다. '이어지지 않음이 없이 이어지는 까닭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니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동시에 한마음이 되니까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

내 마음 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여여하게 놓고 가기에 걸림이 없다

29면에서 계속

러분이 한마음으로 뭉쳐줘서 늘 감사하죠.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내 몸도 이끌어갈 수 없고 가정도 이끌어갈 수 없죠. 사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국가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세계가 내 손 안에 들어야만 국가를 일으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너 나 할 거 없이 돌아 아닌 도리를 알아야 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고요.

▲질문자: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생에서 심은 습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도 마치 질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

내 마음의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니다. 업이란 무엇이든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는지, 또 영(靈)과 불성(佛性)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 번 소상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영이라는 것과 불성하고는 다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영을 혼(魂)이라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의 영혼일 것이고 크면 큰 대로의 영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은 그대로 있으면서도 갖가지로 다르게 마음을 내는 것, 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 비유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이념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하나가 만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는 것을 이끌어가는 그 자체가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에 불바위가 돌아가는 것처럼 불성을 이끌어서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돌아감이 없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의 그릇이,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한 찰나에 드셔서 묘법의 설법을 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에서 볼 때는 현실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약도 있고 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망상제가 지배인이라면 그 지배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악이 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배자가 될 양으로 정신세계에서도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좋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자비스럽게 사랑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빌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기르다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마저 죽어버렸습

부처님께서 한 찰나에 드셔서

니다. 그 임마는 정말이지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써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염원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딱 가보니가 "너는 지금 낳은 아들을 또다시 가서 낳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성해서 이 세상이 모두 혼란이 오니까 너는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명을 받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벌써 죽어서 미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대 미래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각(覺)을 이룬 사람이라, 생사에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미래의 세계로 전파를 보내고 그러한 한편 미래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이 악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꼭 죽어야만 욕망상제가 또 지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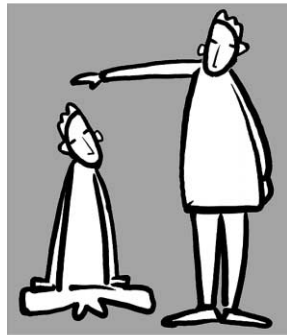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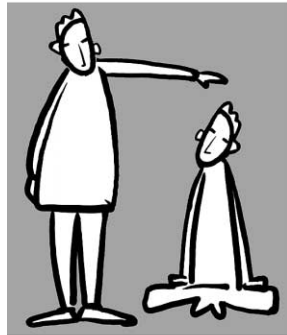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드시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배를 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세계의 한자리의 도리, 아주 차원 높은 도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선의 주인공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살기가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 이 몸중이 욕성이 많이 죽게 되고 살기가 극난해지죠. 불안을 조성하고 방황을 조성하고 또 싸움을 조성하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어지러워서 지구도 그렇고 모두 소멸되는 그런 직전이죠. 악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거를 풀어써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너부터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만이 내가 그렇게 지배

묘법을 설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정신 세계와 같이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 나가 없이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전부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음광으로 다 넣으면 세 최가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도 선도 그렇게 다 넣으라고 하신 반면에 그 중에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내서 저절로 독사 소굴에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자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유도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 있고, 부처도 이 자리에 있고 중생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없다.'라고 한 그 뜻을 가르쳐야만이 미래와 과거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자 실천이죠.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내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뉘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472호에 이어집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43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불성을 믿어라!

그런데 그 과거에서 다시 올 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볼 땐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볼 때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의 차원을 삼차원으로 볼 때, 영혼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자기 그릇대로 노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반면에

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요. 그 여자를 태워서만이 그 영혼을 날을 수 있고 배를 빌려야 하니가,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부친 예를 쓰는데 선에서 여자를 알고선 또 이쪽으로 구하러 보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뜻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니 당신의 그 전자의 아들의 뜻을 바로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뺏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간파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또 노진(漏盡)으로서 결정을 내리니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연방 그렇게 살리는 동시에 한 찰나에 과거와 미래를 드

주름 성형... 했니?

아직도 수술을 하세요?
"지금은 바르는 시대"

보톡스(Botox) 대안 화장품

미국 UCLA 피부과 피부테스트 완료
- 20대 ~ 70대 까지(남,여 공용)
- 눈가, 입가, 이마, 미간, 주름진 부위

* 1994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Dr.Martn Rodbell이 제시한 과학적 원리와 원칙에 따라 개발된 고품격 피부관리 제품

메디덤(주) 02)969-808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가격 수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졸탁동시

(잠ien · 부처님 오음법, 지동단전오음법, 짜크라 여는법)

- 쪼그리고 앉아 배꼽 아래 명치를 손으로 쥐어보면 불행과 병고 액난의 회빙 덩어리가 잡히는데, 중단전 차크라가 막힌 것으로 이런 사람은 호흡수련이나, 영불, 독경, 주력, 위빠사나, 참선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배꼽 주변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고 배에 가스가 차고 허리나 손가락 마디가 까맣게 되며, 열 췌가 쪼개지고 상기병이 되므로 수행의 제일 우선 과정은 중단전 차크라를 여는 것입니다.
- 중단전 차크라 지옥 덩어리를 간단한 수행의 비법으로 잘라내 풀리게 하여 순간 수증화강이 되어져 머리에선 서늘한 바람이 나오고 손, 발, 배는 따뜻해지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된다.
- 위빠사나, 참선 단전호흡 수행시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지고 허리를 약간이라도 구부리고 또한 너무 반듯한 자세로 경직되면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100% 상기병 걸리니 자세법, 이완법, 집중법을 철저히 배우고 수행해야 한다.
- 영불, 독경, 주력 수행의 들숨시에 매가 들어가고 어깨, 가슴이 들켜거리는 역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불행의 늪인 병고 액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자동단전호흡법을 배우시게 되면 몸과 마음과 호흡이 참으로 건강한 수행자가 되시게 됩니다.
- △ 자동단전 호흡법의 기초에서부터 참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심신건강의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 ☞ 수련일시: 매주 목요일 낮 1시 ~ 오후 1시, 저녁: 오후 8시
- ☞ 수련비: 입회비(만원), 수련비(월: 3만원)
- ☞ 오시는 길: 지하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친호방향으로 100M 이명스거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02)456-4994, http://cafe.daum.net/sorisan
* 숨을 휘자게 잘 쉬는법' 책 5월 출간 예정

종각대법종불사 동참 바랍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인연있는 종각, 법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무량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옛 신라에는 국운이 기술자 황흥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안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법륜스님은 옛 신라인과 고려 은성사 주지 법륜인의 진솔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근 대 법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핵 테러의 공포를 소멸하여 인류가 평안하도록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 법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2005년 유류난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생이 새로운 희망을 맞도록 불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뜻 깊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성껏 동참바랍니다.

- ◆ 농 협 521013-56-014321
- ◆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 한철성)

* 입금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서를 은성사로 알려주시면 대 법종 및 동판에 이름을 각인합니다. 참여한 불자들의 공덕이 만세에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법륜 합장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 019-501-1826